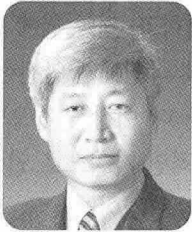




경종농가가 바라보는 자연순환농업



홍준근 사무총장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1. 자연 순환형 농업기반 구축을 통한 상생

2005년 대한양돈협회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자연순환형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을 한 이유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적극 활용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데 있었다. 정부에서는 T/F팀을 결성하고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축산분뇨 자원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또한 상호 공감하며 자연순환농법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업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점점 더 농업인을 궁지로 몰고 있다. 특히 개방가속화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최근에 이루어진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한·미 FTA 협상 결과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전 품목 완전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단일 품목으로는 국내농업 GDP가 최대인 쌀은 유일하게 예외로 되었고 우리 농업정책의 틀의 중심축으로서 앞으로도 그 지위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한국쌀전업농중앙회는 축분을 액비화하여 경종농가에 살포시 38% 면적 밖에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국민의 주식인 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액비 활용 극대화 방안을 쌀생산 농가의 주요과제로 적극 검토 중에 있다.

2. 가축분뇨 자원화 통한 경쟁력 제고

쌀산업에 있어서 수입쌀에 비해 가격경쟁력은 거의 없으므로 품질

경쟁력으로 개방의 파고에 대응해야 하는 실정이다. 쌀생산 농가로서는 우량한 토양을 유지하여 고품질쌀 생산 환경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아무리 우수한 종자와 생산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토양이 황폐해지면 품질 경쟁력은 어려운 것이다. 논에서 벼짚이 사료로 거두어져 재투입이 되지 않아 점점 황폐해가고 있는 우리



농토에 숨길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가축분뇨의 퇴·액비로의 자원화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의 정책이 보조사 무상지원은 줄어들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융자로 전환되었다. 쌀생산농가의 기계화율이 거의 100%에 이르고 있으므로 원가요소의 중요한 한 부분인 기계작업 비용은 높으나 융자이외의 지원 정책은 없어진지 오래다.

따라서 경종농가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종전의 화학비료를 대신할 수 있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양질의 친환경 비료를 저가 또는 무료로 사용하는 길이 유일한 방법이다.

3. 액비사용시 장점과 문제점

지난 2005년 7월부터 정부는 화학비료 지원정책을 없애고 친환경비료 지원으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경종농가는 종전의 재래식 방법으로 화학비료를 투입할 경우 원가 상승은 물론이고 질소질 비료의 과다로 인하여 밥맛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도복을 피할 수 없고 발병의 원인이 되며 수확 시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등 불편한 점이 하나들이 아니다.

지금까지 액비를 사용해본 경종농가들은 액비의 우수성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고품질 친환경 쌀생산의 필수 요소로서의 퇴·액비는 다

수확 뿐만 아니라 동일 농법에 의한 계약재배로 인하여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추가 비료 살포가 필요 없어 농작업 시간이 단축되고 견강한 벼로 인하여 질병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완전 친환경 농법에 의한 경우 고가 판매와 직거래 고객확보에 유리한 점 등 다양한 우수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액비 자원화 과정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보면

첫째, 악취가 나거나 완전 숙성이 되지 않아 작물에 해가 될 수 있거나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불량 품질의 액비를 공급하여 일반적으로 경종농가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는 점이다.

둘째, 액비 활용 농가의 편리성보다 분뇨 처리농가의 편리성을 고려한 정책이 더 많은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토양분석과정에서 액비 사용농가에 분석의무를 부여한 것과 액비 저장고 위치 결정시 축산농가 중심으로 결정하는 등 액비 살포시 따르는 다양한 불편함(시기와 양)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경종 농민단체와의 협력과 우호관계 유지를 표방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실제 협조나 지원된 바가 뚜렷하게 없다는 점이다.

여하튼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기대는 축산농가



못지않게 경종농가에서도 바라는 바가 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축산농가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숙성되지 않은 액비 살포로 농촌을 지나는 국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된다. 축산농가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투입된 다양한 항생제나 중금속 성분들이 제거되지 못한 퇴·액비는 토양오염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오염시키는 우를 범하게 된다. 축산 농가들로서는 경비를 다소 줄일 수 있지 모르나 우리가 먹는 농산물이 중금속이나 항생제로 오염된다면 또 다른 비용을 발생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오류발생을 막고 합리적인 축분 자원화 방안을 위한 자연순환농업의 정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바다에 버리던 축산분뇨 해양투기를 금지한 것은 환경문제를 중요시하는 국제 조류에 의한 것이다. 결국 환경문제는 인류의 건강문제와 연결되듯이 우리의 축산분뇨 처리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4. 신뢰받는 액비 유통공급체계 마련 시급

액비를 잘 활용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액비 살포

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축산농가를 통하여 퇴·액비를 무료 살포하고 있음에도 경종농가들은 축산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한 비료를 비료회사로부터 직접 비용을 들여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

경종농업에 유익한 액비를 축산농가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일수도 있지만 액비에 대한 불신이 앞서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상생을 위해서는 액비 살포기 지원으로 필요한 시기에 살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경종농가가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언제 어디라도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자연순환농업의 확립과 정착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경종농가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우선이며, 분뇨처리에 의한 자원화 과정에 있어서는 축산농가의 이익보다 경종농가 이익을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농업을 보호·유지·보전하기 위해서는 상호 양보하는 마음으로 자연순환농업을 완성시켜 가야한다. 경종농가의 대표적인 쌀전업농가는 고품질 친환경 쌀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떠한 노력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전하게 생산하고 공급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돈**